

## 바벨탑－성서해석의 모험

수이안 유\*  
우택주 역\*\*

이 글은 창세기 11:1-9를 연구한 논문이 아니다. 바벨탑이란 말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려고 활용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정확한 실상보다는 그와 유사한 생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로는 복합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는 상황을 광범위하게 묘사하거나 단순히 일반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바벨탑이란 말은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으로 바벨탑은 인간의 협력과 성취의 상징이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은 인류의 집합장소요, 통일된 모습의 가시적 중심지를 뜻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의 야심을 상징하고 인간적 성취의 절정을 상징한다.

다른 한편으로 바벨탑은 혼란의 장소이기도 하다. 언어의 혼란이 있었다. 이 혼란은 탑 건설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분열, 혼돈과 재난이 있었다.

이 글에서 바벨탑의 이미지는 안정성과 혼돈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 그것은 불안정한 이미지이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들춰주는 일을 한다.

### 1. 인간 성취의 상징, 바벨탑

오늘날에도 고대의 바벨탑과 같은 탑들이 있다. 인류는 탑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탑은 인간의 야심과 업적을 상징한다. 현대의 탑들로는 한때(9/11이전에) 존재했던 트윈 세계 무역센터, 동경타워, 씨어즈 타워, 토론토 CN 타워, 상하이의 동양의 진주 타워,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와 쿠알라룸푸르 타워를 들 수 있다. 이 탑들 모두 인간의 광범위한 협력, 진보와 성취를 가시적으로 상징한다.

탑 이미지는 현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는 위대한 변혁과 기술의

---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역 컨설턴트

\*\* 침례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혁신을 목격해왔다. 다음 발췌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보하였는지를 뚜렷하게 표시해준다.

아인슈타인은 1932년에 ‘핵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표시는 추호도 없다’. ... 프랭클린 텔라노 루스벨트는 미 해군 사령부 부참모 시절에 비행기가 함대공격에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1883년에 로드 켈빈은 영국 학술원장이면서 결코 예상롭지 않은 과학자였던 사람으로서 ‘X-레이는 사기극으로 드러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 ‘발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발명되었다’고, 1899년에 미국 특허청장 찰스 듀얼이 공포했다고 한다.<sup>1)</sup>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용품이 되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는 나름대로 바벨탑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구조물을 건축했다.

## 2. 혼돈의 상징, 바벨탑

현대가 건설한 탑은 높고 장엄하게 서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기초석이 강철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

과학과 기술은 무한대로 도약을 거듭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 저렴한 항공료를 내고 편안하게 여행하며, 케이블 TV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으며, 인터넷에 연결하여 즉시 멀리 떨어진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이 지구촌은 문화적 단절과 종족주의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성서해석의 장에서 우리는 특정 본문을 해석할 때 분해가 더욱 세분화되는 것을 본다. 지역주의, 분열, 그리고 지구촌은 공존하는 것 같다.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인류는 기대에 부응하여 살지 못했다. 양대 세계대전 이전 각종 전쟁을 종식시킨 후에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전역에 발생한 경제파국은 주식시장을 하락시켜 통화가치를 하락시켰고, 돈과 일자리와 생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곤혹스럽고 절망적이며 심지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마저 든다.

한 때 위용을 자랑하던 세계 무역센터 타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1) *Times* 2004. 10. 25, 41.

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가 탑에 충돌하는 장면을 TV에서 처음으로 시청할 때 나는 할리우드에서 만든 최신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깨어보니 우리는 갑자기 전혀 새롭고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예전에 생각했듯이 그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란 반드시 가장 위대한 도약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헤겔의 합의를 개념이란 언제나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파멸의 심연으로 휘감겨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다.

현대가 건설한 바벨탑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에 생각했듯이 견고하거나 안전하지 않다. 위용을 자랑하는 탑은 금이가 균열의 증거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대가 소중히 여기는 진보의 개념, 이성의 지배, 과학과 기술은 이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처지에 있다. 현대를 다른 복합적 요인들과 함께 이렇게 묻고 평가하는 일로 인하여 예술과 문화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과 정신자세를 갖게끔 변화하였고 혹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끌었다.

### 3. “포스트모더니즘”의 용법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 건축, 패션, 음악, 사회학, 기술과 철학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들에 등장한 사상들이다.<sup>2)</sup> 포스트모더니즘은 광범위하며 애매한 용어이다. 그것은 다른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을 다르게 의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1980년 중반에야 비로소 학문적 연구 영역으로 등장하였다.<sup>3)</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4)</sup>

- 1) (연대기적으로 엄밀하게 반드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현대에 이미 존재

2) 다양한 분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에 관한 토론에 대하여, Michael Drolet, *The Postmodern Reader: Foundational Texts* (London: Routledge, 2004), 1-35를 보라.

3) Mary Klages, “Postmodernism” ([www.colorado.edu/English/ENGL2012Klages/pomo.html](http://www.colorado.edu/English/ENGL2012Klages/pomo.html): April 21, 2003).

4) Cf. Martin Irvine, “The Postmodern” ([www.georgetown.edu/faculty/jrvinem/technoculture/pomo.html](http://www.georgetown.edu/faculty/jrvinem/technoculture/pomo.html): 1998); George Aichele, et al., eds., *The Postmodern Bible: The Bible and Culture Collective* (Yale: Yale University Press, 1995), 8-9.

- 하는 현대 사상과 경향들을 포함하고 전제하며 확대하는) 모더니즘 이후.
- 2) (현대의 사상적 특징을 무너뜨리고 저항하며 반대함으로) 모더니즘에 저항. 이런 견해의 몇몇 대표자들이 아담(A. K. M. Adam)<sup>5)</sup>과 맥스 찰스워스(Max Charlesworth)<sup>6)</sup>이다.
  - 3) “후기 자본주의(후기 산업사회, 소비자 중심, 그리고 다국적 자본)”와 동등성.<sup>7)</sup>
  - 4) 예술과 스타일의 절충주의(형식과 장르의 혼합,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시대의 문체 혼용, 건축, 시각미술, 문학 스타일의 시대성을 탈피하거나 다시 설정하기).
  - 5) 지구촌 현상: 문화, 인종, 이미지, 자본 그리고 상품의 세계화.

위의 것 외에도 장-프랑소와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을 간단히 “메타 내러티브를 향한 의구심”이라고 정의한다.<sup>8)</sup>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하이퍼-현대주의 혹은 현대 최후의 호흡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sup>9)</sup>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의 장점과 단점을 토론하는 대신, 대다수가 하는 방식대로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던 사상들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관심사를 좁혀서 인문학 분야에만 한정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살필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열린 접근법, 스타일 혹은 태도를 폭넓게 묘사하는 것이고, 반면에 포스트모더니티는 역사의 한 시대를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동의어가 아니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직선적으로 계승하거나 대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겹쳐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둘 다 현재 존재한다. 덧붙이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포스트모던 세계에 살 수 있다.

---

5) A. K. M. Adam, *What is Postmodern Biblical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  
 6) Max Charlesworth, *Philosophy and Religion: From Plato to Postmodernism* (Oxford: One World Publications, 2002), 156.  
 7)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1991).  
 8)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xiv.  
 9) Mark R. Schwehn, “Christianity and Postmodernism: Uneasy Allies,” David A. Hoekema and Bobby Fong, eds., *Christianity and Culture in the Cross Fire* (Grand Rapids: Eerdmans, 1997), 157.

위에서 살펴 본 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폭넓고 모호한 용어이다. 서로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현상을 언급한다. 이 용어의 다양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 4. 포스트모더니즘의 두드러진 특징들

- 1) 반 기초주의.<sup>10)</sup>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주장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전 받을 수 없는 출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한다. 그것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서 자유롭거나 관점이 없는 접근법이란 없다고 주장한다. 의미란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이다. 지식이란 기껏해야 불확실하다.
- 2) 전체화 반대.<sup>11)</sup>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한다.<sup>12)</sup>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메타 내러티브가 반대 사례를 억누르며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라고 생각한다.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하여 깊이 의문시한다.
- 3) 비신비화. 포스트모던 담론은 우주 보편적인 범주나 우주의 법칙을 추출하려는 일은 그저 보다 구체적이고 세속적(경제, 정치) 이유를 신비스럽게 만드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신비화는 이념적인 투사에 불과하다.<sup>13)</sup>
- 4) 지식의 본래적 선함을 의심한다. 진리의 발견이 악의 문제나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식이란 파괴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예, 전쟁). 그래서 진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sup>14)</sup>
- 5) 과학적 탐구방법의 우위성을 의문시한다. “진리는 이성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관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sup>15)</sup>

포스트모던 사고에는 강하고 급진적인 포스트모더니즘부터 온건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여러 가지 경향이 존재한다. 온건한 형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비평

10) 기초주의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제 일 원리의 외적이고 불변의 근거를 말한다. 여기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로크와 흄의 경험주의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미란 외적 실체에 근거하여 명료하며 객관적이다. Millard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128을 보라.

11) A. K. M. Adam, *What is Postmodern Biblical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1995), 7-10.

12) 메타내러티브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총괄하는 내러티브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일일이 통일시키고 해명한다.

13) *Ibid.*, 11.

14) Millard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 18-19.

15) *Ibid.*, 19.

을 적게 받지만 독특성이 별로 없다. 반면에 급진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독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평을 많이 받는다.<sup>16)</sup> 아래에서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경향성들을 골라내지 않은 채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주 폭넓은 반응을 야기하였다. 혹자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일종의 구원처럼 또는 가장 최신의 지적 사조로 취급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알면서도 맹렬하게 거부했다. 나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것을 비평적으로 다루고 그 내용과 전제를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약속과 위협, 낙관론과 위험론을 모두 동반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룰 때 나는 채석장에서 보석을 찾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다. 채석장에서 나는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잡석들도 함께 있다. 또 가치를 알 수 없는 가공품도 있을 수 있다. 나는 보석을 줍기 위해 수고할 것이고 잡석은 내버리고 가공품은 나중에 조사할 요량으로 따로 모아 둘 것이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줍고 버리는 접근은 실험정신에 근거해 있다. 판단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때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석을 내버릴 수도 있고 대신 잡석을 주워 모을 수도 있다!

성서해석의 영역에 관하여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용하며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나는 그 전제 몇 가지를 의심하면서 다른 측면들도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깨달았다. 다음의 글은 몇 가지 개인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그것들은 결코 전부를 다루거나 결론적인 내용도 아니다. 발전시키고 있는 작업의 일부이다.

## 5. 포스트모더니즘과 성서 해석

### 5.1. 진리의 부분적 이해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 본문의 이해란 기껏해야 부분적이란 사실을 부각시킨다. 나는 특정한 관점이나 전제로부터 본문을 본다. 내가 이해한 본문이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 내가 자라난 배경과 경험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색안경을 쓰고 읽는 내용을 걸러낸다. 나는 모든

---

16) Millard Erickson, *The Postmodern World: Discerning the Times and the Spirit of Our Age* (Wheaton: Crossway Books, 2002), 87; Thomas Guarino, "Between Foundationalism and Nihilism: Is Phronesis the via Media for Theology?" *Theological Studies* 54 (1993), 40.

관점에서 본 전체적 진리를 얻을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은폐된 요소들을 전면에서 부각시킴으로써 도움을 주어왔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반드시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장하거나 전제할 문제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진리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러므로 나의 이해는 어느 정도 잠정적이다. 바울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이해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다(고전 13:12).

성서의 여러 부분들에서 내는 목소리가 여럿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본문으로부터 읽은 의미를 절대시하지 못하게 한다. 오경의 여러 곳에서 집단 처벌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특히 에스겔서에서(예, 겔 18장) 개인 책임론을 강조하는 내용과 상충된다.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상황 변화가 이런 강조점의 변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성서는 신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아울러 인간의 자유도 강조한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마 5:44),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한다(마 23:13-36). 이렇게 반대되는 주장들은 우리가 성서의 특정 목소리를 보편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림의 일부를 접하는 것이며 그림의 부분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혹자는 지식이 관점에 의존한다는 본질을 극단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견해가 타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혼돈에 빠져 전체가 자기 주관에 휩싸여 목적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극단적 형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일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전제를 알고 있다면 자신의 편견을 최소화하려고 애쓸 수 있고 그래서 더 “객관적인” 이해를 향하여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나는 완전한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다 상식적으로 동의되고 용납되는 견해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은 비평적인 자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보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망 속에 부분적으로밖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얻은 통찰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의식은 우리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얻으려고 애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 이해는 진리란 반드시 유동적이며 혹은 상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대적이라는 뜻이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유익한 측면은 권력과 진리의 관계이다.

때로 진리로 제시된 것이 엘리트 권력자의 관점에 불과할 수 있다. 진리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종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의 견해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를 들자면, 특히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정치인들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본다. 경쟁하는 정당들은 동일 사건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정당을 비난한다.

권력은 진리를 조종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불만 세력을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아주 흔히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떤 경우는 부자와 권력자가 법정의 판결을 조종하여 불의를 초래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해석자 측의 건강한 의구심은 필요하다. 여성주의 비평과 이데올로기 비평을 예로 들자면 이들은 본문에 권력의 역학을 아는 데 도움을 주었다. 책이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누구의 견해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얻는가?”를 묻는다. 여기서 의심의 해석학이 도움이 된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권력과 진리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한편, 진리 탐구는 “어디서나 항상 진리와 지배 영역을 향한 가장된 탐구”<sup>17)</sup>이며 그래서 억압으로 이끌 것이라는 가정이 너무도 무성하다. 진리 탐구가 언제나 권력과 지배를 가장한 탐구일 필요는 없다. 진리 탐구는 자유 혹은 정의의 탐구일 것이다. 덧붙여, 권력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이슈는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권력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측면에서 혹은 아래에서 위로 행사될 수도 있다. 권력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5.2. 저자, 독자, 본문

내가 처음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성서 해석이란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나는 본문이 과거에 의미했던 바 혹은 원 저자가 이해한 대로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접근법을 수행하며 지냈다.

점점 나는 성서의 특정한 책을 누가 썼는지 혹은 누가 편집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종종 깨닫곤 한다. 이것은 구약에서 특히 더 그렇다. 저자가 누구인지 내가 확신하는 경우에조차 그들의 의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나

17) Schwehn, “Christianity and Postmodernism: Uneasy Allies,” 161.

는 본문 배후의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본문의 복사본과 번역본뿐이다. 실제로 저자의 의도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해석방법들은 저자를 강조하는 한편,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관심사가 독자에게로 바뀐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독자들은 글을 읽을 때 의미를 구축한다. 본문은 독자의 목표, 가치, 맥락에 따라 해석된다.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 즉 모두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의 다중성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 포스트모던적 경향의 도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독자를 이렇게 강조하는 차원에 비추어, 데이빗 클라인즈는 해석의 최종 사용자 이론(End-User Theory)을 제안했다. 이 포스트모던 세계에는 ‘옳은’ 해석들, 우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들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석자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해석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사실, 해석자들은 그들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이다.<sup>18)</sup> 청중의 수용이 해석의 주요 열쇠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해석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판매할 수 있는 해석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들은 고객들을 위해 고객의 요구와 형태에 맞게 옷감을 재단한 해석 곧 고객 편의의 해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sup>19)</sup> 어떤 해석을 수용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므로 그들이 바로 지배자들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지배권을 행사한다”.<sup>20)</sup> 우리의 수고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독자들 혹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포스트모던적 공중납치를 당한 사태를 두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나는 독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 독자들은 의미를 만들어낼 때 본문과 상호작용을 한다. 의미의 구축은 독자와 본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독자들이다. 우리는 본문에 접근할 때 우리 자신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정 본문의 해석의 다중성은 부분적으로 독자들의 목표, 관심사 그리고 상황이 지닌 차이점들로 인해 생긴다.

이제껏 말한 것을 두고 볼 때, 나는 본문의 의미가 전적으로 독자가 만들어 가

18) David J. A. Clines, *On the Way to the Postmodern: Old Testament Essays, 1967-1998*,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59.

19) *Ibid.*, 60.

20) *Ibid.*, 61.

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모든 해석이 똑같이 타당하며 해석의 목표란 판매할 수 있는 읽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독자들의 수용 여부는 강조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나는 그것만을 충분한 판단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독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때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독자들의 역량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그들이 해석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일, 그리고 독자들이 분석하도록 돕는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회 문학적 상황과 우리가 본문에 가져가는 전제와 목표가 어떻게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해석자가 비평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이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계도 있다. 무엇이더라도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의미를 전적으로 독자들이 창출해내기 때문에 모든 견해가 똑같이 합법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견해를 고집한다면 의사소통이란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어떤 사람이 포스트모던 글을 읽고 있다가 저자에게 “귀하의 글은 명료성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마음이 명료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음을 반영합니다. 귀하의 정신은 혼란스럽고 산만합니다. 귀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귀하는 글쓰기를 그만두고 대신 가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라.

나는 포스트모던 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그가 여전히 의미란 전적으로 독자가 구축하는 것이므로 모든 해석이 똑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할까? 그 대신,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정신적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할까?

본문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을 즐기는 해체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의 글이 읽히고 이해되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나는 본문이 의도하였던 의미들을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좋을지 그 한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의도한 바가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슈이다. 어떤 본문은 모호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모호성은 저자의 목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글을 쓸 때의 기술 때문에 또는 그것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같은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본문에 의도했던 의미가 없다는 결론으로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군대를 파병하

면서 이라크를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 그 본문은 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게 이해되길 뜻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의미를 구축하는 일이 독자에게 떠맡겨진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레이시아의 고등법원이 2004년 9월에 직전 부수상을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의 본문은 백성들이 이해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경우에 본문의 의미들은 비교적 명료하다.

포스트모던 상황은 독자의 상황과 의미를 구축하는 데 독자의 역할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해석의 다중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본문의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맥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문과 그 맥락은 의미들을 적절하게 하는 경계들을 설정한다. 여기서 내가 정말 의미하는 바는 본문에 하나의 합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의미들의 궤도(a trajectory of meanings)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의 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소유하는” 대신, 개연성 있는 의미들이 놓여 있는 하나의 궤도를 지시한다.

성서본문의 경우 우리는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역사, 언어적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간격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어떤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들을 포착하기란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나는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들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치를 말하고 있다. 나의 목표는 본문의 적절한 읽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본문의 바로 그 하나뿐인 의미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능해진 해석의 다중성을 살펴볼 때 나는 또 점점 더 해석의 윤리에 따라 생각하기를 경험한다. 이 해석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해석을 제안할 때 나는 본문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정당하게 다루고 있는가? 본문, 해석자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 사이에는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다.

### 5.3. 정확도

성서해석에서 우리는 점차로 ‘다중적 읽기’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동일한 성서 본문의 상이한 번역이 많아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석한 주석집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표시이다.

이 유동성의 일부는 말씀들이 그릇이라기보다는 지침 같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말이란 의미들의 궤도를 지시한다. 이를테면,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어 “bat”

(바트)는 다음 항목들을 지시할 수 있다.

- 출생한 딸
- 며느리. 예를 들어, 룯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른다(룯 1:11, 12, 13; 2:2, 22b; 3:1, 16, 18)
- 젊은 여인(룯 2:8; 3:10, 11)
- 딸의 은유적 용법. 시온은 종종 딸 시온으로 묘사된다(사 1:8; 10:32; 16:1).

“바트(bat)”란 단어는 넓은 의미 영역을 지시하는 한편 의미가 무한하지 않다. 구약에서 “바트”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시하든지 그것은 “하늘”, “고양이” 혹은 “치즈”를 의미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을 다룰 때, 나는 정확도에 따라 생각하기를 선호한다. 문맥과 장르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암호로 보내는 군사 전문은 고도의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 암호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중요하다. 의도했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장르의 본문은 고도의 정확도를 가진다.

반면에 즐거움과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쓴 피기소설은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모호하며 채워야 할 간격이 많고 반전도 많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본문은 상대적으로 고도의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위의 진술이 참되다면 우리는 고도로 정확한 것부터 고도로 불확실한 것까지 이르는 연속체와 그 사이에 있는 결절들(points)을 갖고 있다. 본문의 장르와 상황과 의도들은, 정확도에 영향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 개연성 있는 의미를 얻어내려고 작업할 때 우리는 서로 관련성을 지니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이클을 생각할 수 있다. 한쪽에서 변화가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한 단어의 의미들은 문장의 의미들에 의존한다. 비슷하게 한 문장의 의미들은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또 더 큰 단락 전체의 의미들에 의존한다. 거꾸로, 단락의 의미들은 개별적인 문장들과 단어들의 의미들에 의존한다.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 한 쪽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sup>21)</sup>

어떤 의미가 용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이클들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 개인의 경건, 교회의 예배 그리고 봉사과 사회 참여로 보는 실천의 사이클.

21) Edgar V. McKnight, “A Defense of a Postmodern Use of the Bible,” Michael S. Horton, ed., *A Confessing Theology for Postmodern Times* (Wheaton: Crossway Books, 2000), 77.

22) *Ibid.*, 77-80.

우리가 성서를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론에서 실천으로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실천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의 실천에 부합한 이론을 상정할 수도 있다.

- 이 읽기가 교회의 교리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는 교리의 사이클.
- 역사와 역사적 연구의 사이클.
- 언어가 그런 읽기를 허용하는지를 보는 언어와 문학의 사이클.

#### 5.4. 다양한 방법들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나는 “문법적 역사적” 주석 방법을 배웠다. 나는 내 입장과 전제에 따라 본문을 읽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대신 나는 원래의 청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여, 원 저자의 마음과 시대 속으로 이동하여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 나중에 더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나는 역사비평적 방법을 학습하였다. 그것이 당시의 성서 해석 방법이었다. 나는 학습을 통해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를 풀려고 애쓰거나 복합적인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본문은 엄정한 이성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각 방법론이 안고 있는 한계와 일방성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특정한 방법론은 그것을 발전시킨 문화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어느 비평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일은 “본문의 여러 차원을 분간해내는 데 필요한 비평적 방법들을 주석가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이 차원들의 가치 판단을 미리 정하고, 그것들의 위계질서를 단정지어, 일차원적인 주석을 생성한다”.<sup>23)</sup>

학계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비평적 연구의 결과가 기독교인의 실천과 무관한 것이며 심지어 위험한 것이라고 느낀다. 결과적으로 비평적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교회들과 평신도들에게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서를 연구하는 역사비평적 접근법의 지배력이 쇠퇴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과학과 이성의 지배력 쇠퇴 때문이다. 현대에 과학은 성서 해석을 위한 안건을 설정하였다. 학자들은 성서의 본문을 과학적 발견과 조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다양한 해석들(간격 이론, 하루-시대 이론)은 기본적으로 본문을 과학적 발견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이다. 성서본문을 소위 과학적 발견과 조화시키기 위해 온갖 상상을 동원한 실례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본문은 과학정신의 한류(寒流) 속에 침잠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면서 지금은 과학이 기본적으로 전제 위에 세워져

23) Daniel M. Patte,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 Reevalu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46.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학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작업이 아니다. 활발하게 탐구할 때 과학자들은 과학의 기초가 “전통적으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들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들은 확고한 증거들에 의해 수립될 수 없다; 그것들은 다만 신학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수사법 혹은 일종의 언어로 논의될 수 있을 뿐이다.”<sup>24)</sup> 과학적 실험은 미리 예정된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그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며 결론도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것이다. 추가로, 과학자들의 연구기금, 자기 관심사와 불완전성도 과학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준다.

또 인간의 사유 역시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보편적 범주가 아니라고 인식한다. 사유하는 데 상이한 전통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사유는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것은 특정 패러다임에 얽매인다.<sup>25)</sup> 예를 들어, 어떤 사유 패러다임은 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거부하고 다른 패러다임은 이런 현상을 허용한다.

논리의 한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고대의 현자(賢者)는 이것을 오래 전에 간파하였다. “헤라클리투스는 ‘너는 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같은 강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한 번조차도 건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대의 논쟁자들은 논리 하나만을 신뢰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었다.”<sup>26)</sup>

성서 본문과 연구 방법들이 이성과 과학주의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현상은 좋은 일이다. 성서 해석은 현대주의와 과학주의의 폭정에서 해방되었다. 적어도 과학주의에 길들여지는 대신에 아무리 이상할지라도 과학 이전 시대인 고대의 성서 본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말할 출구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성서해석의 방법들과 접근법들이 폭증하고 있다. 몇 개만 언급하자면, 사회과학적 접근법, 정경적 접근법, 수사학적 접근법, 내러티브 접근법, 독자 반응 비평, 여성주의 비평법과 이데올로기 비평 등이 있다. 이렇게 방법론이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하는 것은 건강한 발전이다. 어떤 한 방법이 모든 진리의 수호자일 수는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옳은 방법도 없다. 우리는 수많은 합법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흥미진진한 발전이다. 상이한 방법들은 본문들의 상이한 측면들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이한 방법들은 본문을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그래서

24) Wayne C. Booth, “Deconstruction as a Religious Revival,” David A. Hoekema and Bobby Fong, eds. *Christianity and Culture in the Crossfire* (Grand Rapids: Eerdmans, 1997), 138.

25) Thomas Guarino, “Betwen Foundationalism and Nihilism,” 45-48.

26) Eugene T. Gendlin and Richard A. Shweder, “Conference on After Postmodernism” (<http://www.focusing.org/apm.htm>, 1998).

본문의 이해를 증진시켜준다.

### 5.5. 해석의 목적

포스트모던 상황으로 인해 우리들은 해석자들이 본문에 접근할 때 다른 목표를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혹자는 본문이 의미했던 바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찾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본문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 만족할 수 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을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유머와 놀이의 강조가 건조하고 고리타분한 탐구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유머와 아이러니가 정말로 풍부하다. 나는 창세기 2장에서 여인 창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종종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야웨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2:18)”고 말씀하신 후에 새와 들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2:19-20).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내는지를 알아보려는 일과 흡사하다! 또 나는 요나의 메시지에 앓수르 백성들이 선뜻 보여준 반응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다. 그들은 심지어 가축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배움을 입게 하였다(욥 3:7-8)! 또 성서의 어떤 구절들을 해체적 관점으로 읽는 것도 흥미진진하다. 어떤 본문은 모호함이 가득해서 해체주의적 접근법은 이런 본문들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열어준다. 포스트모던 저자들은 우리가 어떤 본문들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측면들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나는 **모든** 본문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같이 가볍게 다루는 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성서 본문은 분명 다양한 주제들과 강조점들을 전달한다. 만일 구원이 성서에서 중요한 한 주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장난을 칠 주제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추가로, 성서의 여러 곳에는 선교에 대해 강조를 한다(예, 요 20:31; 요일 5:13). 그것은 또 신앙공동체들의 삶과 교훈을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성서의 이 전체적 목적은 어떤 목표를 지닌 해석이 적절한지를 밝혀줄 것이다.

### 5.6. 상상력과 해석

나는 해석할 때 상상력의 역할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는 성서 본문의 세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정말 나는 리서취를 해야 하고 신중하게 주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점까지 뿐이다.

이렇게 보면, 성서 이야기에서 나는 본문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마음속에 그리는가? 그들의 상대적 나이는 무엇이었으며 사용한 언어의 형태나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어투는 어땠는가? 이렇게 준 언어학적 현상들을 고찰하는 일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고대 세계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과 거래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나의 해석에 영향을 줄 것이다.

폭넓은 차원에서 본문과 관계된 다른 질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왜 본문이 기록되었는가? 본문의 사회적 정치적 모체는 무엇이었는가? 누가 이 본문을 보존하므로 이익을 보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본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1:1-14에서 우리는 당시의 기근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사울의 일곱 아들과 손자를 산 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읽는다. 그 의식은 효력을 나타내었고 토지에 필요한 풍요를 가져왔다. 자, 일반 대중 외에 누가 또 사울의 후손들을 살육함으로써 이득을 보았겠는가?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으면서도 왕위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였는가?

이것은 상상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상력은 접어들 필요가 있는 날개가 달려 있다. 여기서 신중한 탐구를 해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레안더 켈(Leander Keck)은 과거 두 세기 동안 “과학 이전의 신화적인 성서의 언어를 추상적인 어구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sup>27)</sup>고 관찰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희생시켰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성서적 이미지와 은유들이 가지는 풍부한 의미들을 단 하나의 것으로 축소시키기도, 풍부한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켈의 요지는 이렇다. “이제 때가 왔다. 성서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할 때이다. 성서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기를 멈추고 그 신화적 특성이 우리의 사고에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찬미를 받게 할 때이다.”<sup>28)</sup>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할 것이다.

## 5.7. 문제의 영역

27) Leander E. Keck, “The Premodern Bible in the Postmodern World,” *Interpretation* 50:2 (1996), 138.

28) *Ibid.*, 130.

포스트모던 사상에는 문제시되는 영역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미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몇 가지 가정은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진리의 추구는 권력의 추구이고 그것이 억압으로 이끈다는 주장이 너무 지배적이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진리는 해방시킬 수 있으며, 권력은 힘없는 자들을 힘있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보다 극단적인 형태 속에는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과 비일관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해체주의는 우리의 자기 관심사, 개인적 편견,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가져가는 가정들을 쳐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체주의는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론상 해체주의는 자신의 해체를 겪어야 하지만, 이 접근법을 고수하는 자들은 자기 방법이 해체되는 것을 거절해 왔다.

데리다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즐겼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체주의자는 때때로 본문이 의도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존 서얼(John Searle)의 비평에 대한 답변으로 그가 쓴 93쪽의 글에서 유추할 수 있다. 거기서 데리다는 서얼이 여러 곳에서 자기 입장을 오해했으며 잘못 진술했다고 논박했다. 데리다조차 자기가 의미한 것이 설리에게 명료했었다고 주장했다.<sup>29)</sup> 의미가 전적으로 독자가 구축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주장은 불필요하다. 데리다는 독자들이 자기를 오해했다고 느꼈을 때 명백하게 이를 전혀 좋지 않게 생각했다.

해체주의는 모든 메타 내러티브를 열렬히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메타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그것은 자기 외의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한다. 이것이 본질적인 모순이다.

우리는 또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문화사의 아주 최근의 한 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머물지 모른다. 문화와 세계관은 변천한다. 1997년 11월 14-16일에 시카고 대학교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관한 컨퍼런스”<sup>30)</sup>란 제목의 세미나를 조직하였다. 93명의 학자들이 이 때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다가올 것에 관하여 이미 토론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어느 정도 임의성과 잠정성을 갖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도움 될 만한 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 사조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젖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29) Jacques Derrida, “Limited, Inc., abc,” *Glyph* 2 (1977), 162-254;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 156에서 재인용.

30) 이 컨퍼런스의 논문을 보려면, <http://focusing.org/apm.htm>을 검색하라.

## 5.8. 결론적 고찰

모더니티는 자신의 바벨탑을 건축했다. 수세기 동안 우뚝 서 있는 것은 이성이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상적인 구조물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정밀 조사는 탑에 균열이 간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기울어진 탑이 되어 관광하기 좋은 기념물이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로 외양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어렵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소규모 구조물이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더욱 활발한 연구 분야가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목소리들을 들을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성서 해석의 경우, 우리는 정말로 가슴 뛰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바벨탑은 혼돈과 분열의 장소이다. 하지만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다. 창세기 11:1-9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흩어진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교만을 산산이 부수었다. 이성, 과학, 그리고 진보라는 사상의 지배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의문 제기와 고찰 속에서 우리는 성서 본문을 그 나름의 목소리에 따라 새롭게 읽고 들으며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만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바벨탑은 궁극적으로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